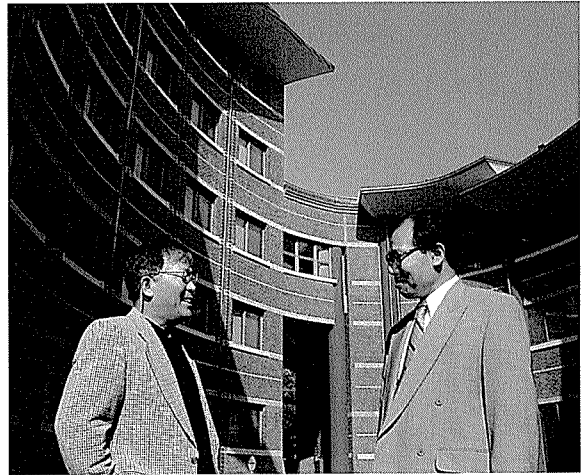


기하학적 볼륨의 완결성과
전통성의 현대적 수용

The Wholeness of Geometrical Volume and
the Contemporary Adaptation Tradition

대담자 / 김형우(홍익대 건축공학과 교수)
설계자 / 강석원(그룹가 건축도시연구소)
by Kang Suk-Won VS Kim Hyeong-Woo
일 시 / 98. 5. 20(수) 오후 14:00
장 소 / 갈평 피정의 집 응접실



「갈평 피정의 집」 중정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는 강석원(왼쪽)과 김형우(오른쪽)

최근 건축가 강석원씨의 작품이 건축매체에 소개된 적은 드물다. 건축사협회에서 분당의 시범주택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을 추천하여 진행했으나, 강석원씨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1-2번지에 소재하는 갈평 피정의 집을 대상작품으로 정하였다. 이전에 이 작품을 전혀 접한 바 없는 대담자와 비평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을 답사한 뒤 대담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아침 7시부터 김포공항이 짙은 안개에 물려 10시30분까지, 포항행 비행기의 탑승안내 방송을 기다리며 건축가, 사진기자, 편집기자와 함께 도면을 펼쳐가며 미담의 방문지와 건축을 상상해 보았지만, 실감이 오지 않았다. 오늘날 공개가 가능하다는 제약된 시간과 현재의 기상이 걱정되었지만, 막상 포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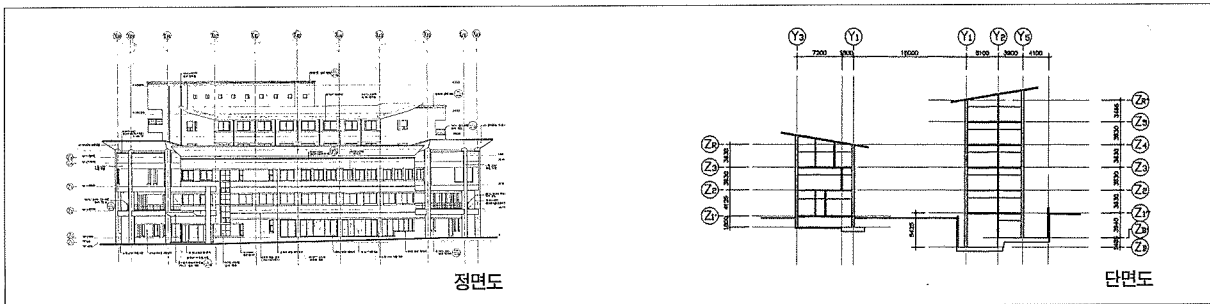
김형우 _____ 우선 갈평 피정의 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강석원 _____ 예수성심수녀원 소속의 수녀는 약 5백여명인데 1년에 1회 이상의 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정의 집이 기본이지만 이를 관리할 수녀원과 연수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동의 건물이 분리되면서도 통합된 건물군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3층의 수녀원과 5층의 피정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서 각각 연결 통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녀들을 위해 사용되지만, 이밖에도 일반신도와 외부인의 연수에 이용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는 병원과 연계하여 신체부자유자의 일시적인 시설로도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형우 _____ 최근 중정을 채택한 일련의 건축물이 많은데, 특히 종교 관련 건축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설계의도에서 추구하고 계신지요?

강석원 _____ 생활공간은 자연 속에 집을 짓더라도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물로 에워싼, 건물의 영역을 규정하는 경계가 되는 공간을 지니기 위해서 중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정의 의미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누리는 공간이며, 격의 없는 공간으로써 외부와 차단되게 하는 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마드리드 소재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의 경우는 대사관의 기능상, 외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차폐성, 방호성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획득하려는 데 있으며, 특히 지역적 건축과 전통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후와도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 인천 가톨릭 신학대학 경우에는 신학도들이 누리는 숙정한 생활공간의 확보에 있습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기숙사동과 교사동이 에워싸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신학도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데 있습니다. 갈평 피정의



피정의 집

집의 경우에도 피정을 하는 수녀들의 상징적 공간영역으로 관상과 내향적인 생활의 반영에 주안되어 있습니다.

김형우_____ 피정의 집은 폐쇄적이거나 은둔적인 입지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종래에는 낮은 건물들이 마을들과 어울려지거나 지면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평리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건물의 매스가 전원에 우뚝 솟아 있으며 너무 건물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생활공간을 가리거나, 개구부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지요.

강석원_____ 피정의 집은 가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피정의 집, 기숙공간에서는 외부를 가려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의 공간을 의도하였습니다. 밖에 투명 창호를 두고 내부에 창호지 문을 둔 것은 일상과 다른 공간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죠. 피정의 집은 중층도를 채우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위 실은 중정을 향해 있고, 층별로 사감실과 온돌방은 보이지 않지만 발코니 쪽으로 나가면 전원을 관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휘어진 복도에서는 직접 복도 끝의 개구부는 보이지 않지만,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 홀에도 반투명한 창호지의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고 마주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사감실과 큰 단위 실은 단체가 왔을 때 공동으로 생활하는 방이기도 합니다.

김형우_____ 선생님의 작품에서 기하학적인 매스와 구성은 지속적으로 변용 발전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정방형, 원형, 팔각형, 타원형과 같은 평면형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강석원_____ 사각형은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범속한 디자인이라면 원형과 타원형 등의 특이한 형태는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볼륨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원형은 큰 볼륨으로 되었을 때 내적인 공간의 구성이 완결됩니다. 김수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원형의 볼륨에서 완결성을 추구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크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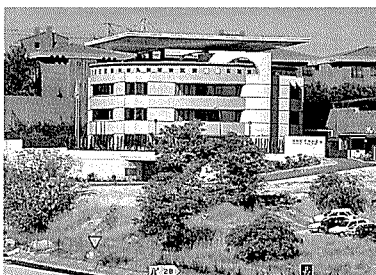
시설이기 때문에 타원형의 형태를 채택해 중재적인 해결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짧은 볼륨일 때 수평대를 강조해 이러한 형태적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했지요. 평면을 택한 것은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이 여성을 위한 건축이기 때문에 여성의 모태적 공간이나 부드러운 여성의 감각을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김형우_____ 갈평 피정의 집에서 외부로 드러난 원주와 보의 결구와 내향적인 중정공간, 주두를 가지고 있는 원주의 표현 등은 선생님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 전통공간의 표현과 디테일의 구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통공간의 표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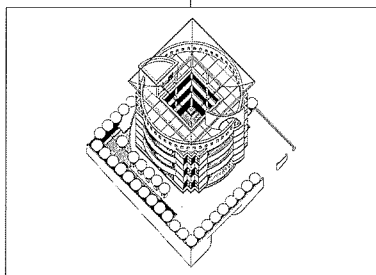
강석원_____ 전통공간을 콘셉츄얼하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공간적인 감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공감적인 체험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전통의 현대화는 주장이 아니라 설득력있는 감각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면적인 공간의 구성으로 중정을 채택하였다고 전통적인 공간이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재료의 느낌과 색채를 적용하는 것이 좀더 쉬운 방법입니다. 내부공간에서 기능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실용성 있는 공간을 확립하는 것이 나의 꾸준한 작업 속에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씩 더 생각하여 완결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김형우_____ 선생님의 작품에서 정방형 격자의 개구부와 서구적 감각을 지닌 색채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색채의 사용에 나타난 일관성은 어떤 것인지요?

강석원_____ 색채는 공간을 풍부하게 하고 특징있게 하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맛있는 공간의 대비와 자극일 수 있으며, 평이한 공간을 활력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제와 균형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성페인트와 같은 일회성의 색채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건축의 색채는 재료의 색채로써 영속성을 지녀야 합니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인천 가톨릭 신학대학

다. 개구부의 색채는 건축의 내·외부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제가 주로 즐겨 사용하는 적벽돌의 재질에서는 연두색, 초록색과 같은 보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인 특성을 지니는 문 짝판, 내부공간의 벽면에서는 노랑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갈 평 피정의 집에서는 외부의 원주와 보 등에서 노출콘크리트 위에 우리 전통건축의 기동색인 적갈색을 사용하였는데 최근 복원된 창경궁과 종묘 등의 고건축에서 적갈색과 초록색 계열의 색채의 대담한 배색조화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형우 1970년대에 귀국하여 보여준 선생님의 건축은 구성적이고 면적인 표피의 구성과 기능적인 공간의 구성으로 상당히 깔끔한 건축의 표정을 가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포스트모던한 건축의 영향이랄까 서구지향의 고전적 건축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남의 에스모드 빌딩에서는 수평띠를 강조하고 있고 갈평 피정의 집에서도 수평띠가 보이는데, 디자인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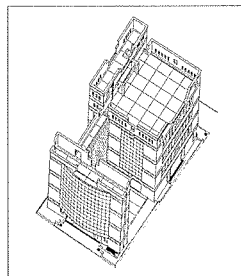
강석원 적은 볼륨에서 수평선은 안정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고, 벽돌로 외벽에서는 벽돌의 단순한 면적인 처리보다는 벽돌의 다양한 재질과 색채를 구사하여 풍부한 외관을 이루려고 한 것에 있습니다. 창대의 아래 인방을 화강석으로 처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조적조 외벽에서 수평띠는 벽돌쌓기의 하루 적정량을 쌓는데 필요한 척도를 제공해 줍니다. 역시 외벽 마감이 벽돌로 이루어진 인천 가톨릭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핑크색과 라이트 브라운의 재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고식적인 벽돌의 면적 채움에서 벗어나 재료의 풍부함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김형우 3층의 성당에는 제대 뒤로 개구부를 뚫어 자연을 차경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강석원 제대 뒤를 개구부로 개방하는 것은 국내에서 시도한 예가 없기 때문에 성직자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요. 미사를 볼 때 신부를 중심으로 하는데 개구부를 통해 배경이 들어오면 산만해지고, 주변에 매료되기 때문



에스모드 빌딩



에스모드 빌딩

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제대 위에 천창을 뚫어 햇빛을 유입하면 집전하는 신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배경은 자연히 흐려진다고 봅니다. 또 미사는 하루에 한 번정도 열리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3번정도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자연과 대화하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전원의 피정의 집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소통되고 하늘과 교호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전면 에 스테인글라스를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사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이고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형우 아직까지 중정의 마감은 완결되지 않고 생소한 디자인의 분수가 시공 중에 있는데, 처음 의도한 계획과 차이가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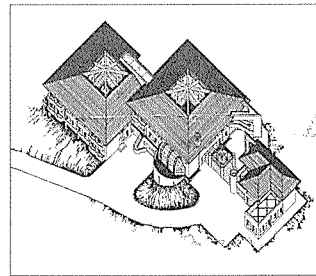
강석원 건물주 측에서 다양한 욕구와 의욕들을 직접 시공하여 채우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왕사 위에 유색 조립식 블록을 깔고 타원형의 한쪽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 내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부출입구의 축선을 맞춰 3개의 병렬된 H형강 띠를 바닥에 넣어 액센트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과장된 분수가 건축가의 의도를 떠나 건물주 측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중정은 안전한 공간으로써 숙정과 생활의 영역으로써 다양한 액티비티를 기대해 봅니다.

김형우 처음 이 건물의 도면을 보면서 타원형의 지루한 면이나, 형태 종속의 디자인이 주는 무위를 생각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살펴 볼 때 중정으로 통하는 에디컬러의 큰 공허부와 3층의 수녀원과 5층의 피정의 집이 보여주는 볼륨의 위계, 두 블록 등이 3층에서 연계되므로 해서 이어지는 공간의 완결감과 외벽의 돌출과 기둥과 허드레일이 연출하는 로기아(Loggia)의 구성 등은 무한히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치도에서 도면 대지의 형상과 건물이 앉은 위치가 너무 콤팩트하게 걸려 있던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강석원 설계 초기의 배치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필지가 한정되어 있고, 좀더 자유로운



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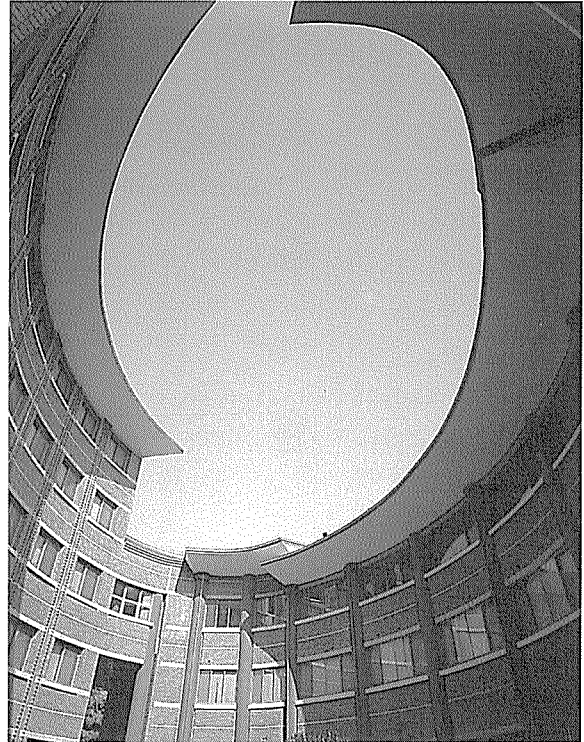
성지원

배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과정과 시간을 요했습니다만, 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현재의 상태에서 대지의 경계는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제관과 일상 이 건물을 관리하는 수녀원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기능적인 면과 식당 주변이 양호한 수림내로 막혀 있어 시각적인 여유로움과 풍치를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측에서 보면 특이한 건물의 외관을 주목하게 되는데, 가끔 지나치는 여행객들이 호텔로 알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식재를 하여 도로측에서 좀더 가려지도록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확실적인 수종의 식재는 좀더 재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 측에는 수벽을 이루고 그 안쪽의 외부 공간에서는 면적이 조경과 물, 조각 등이 안온하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우 _____ 타원의 외측으로 높게 솟아있는 경사지붕은 우리 전통건축의 상층하는 지붕의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경사면의 지붕을 의도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강석원 _____ 이미 마드리드의 스페인 주재 한국 대사관 등에서 휘어진 지붕의 양감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전통건축 지붕의 현대적인 표출에 주안하였고,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원래에는 아래서 쳐다보는 경사면을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처럼 콘크리트 면으로 되어 둔중한 볼륨이 약간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쉽습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휘어진 지붕면의 구성은 의도한 대로 힘찬 내부공간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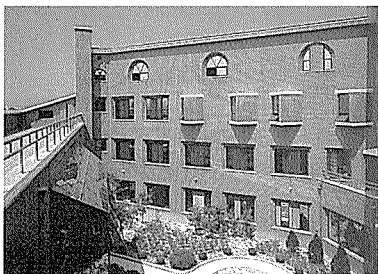
김형우 _____ 각진 모서리 면에서 벽돌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지는 벽돌의 디테일 처리와 안쪽에서 물 흐름을 삽입하게 수직으로 띠를 이룬 절곡면과 원형기둥으로 내려오는 물 흐름을 위에서 주두처럼 돌려서 처리한 것과 같은 많은 건축적 디테일의 완결성은 특히 조적조 벽돌 외벽구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온 풍부한 시공에 대한 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시공이 이루어질 때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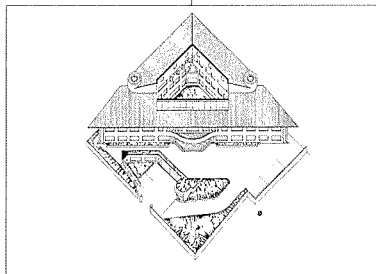
피정의 집

강석원 _____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설계기간을 가지고 적절한 시공단가를 확보해 건축주에게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자가 경기의 변화나 다른 여건의 변화로 일관성있는 작업이 되지 못하고,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설계자가 통일된 집행으로 시공을 리딩하는 것이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안정된 건축인력을 가지지 못하고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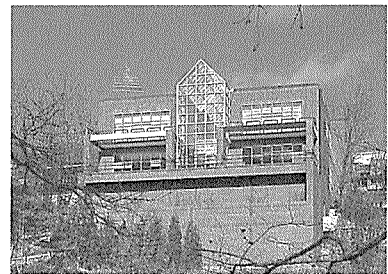
김형우 _____ 그 동안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국제적인 한국의 건축적 위상을 높인 것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중 발표한 작품이 많지 않지만 선생님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건축의 발전과 현대적 수용이 근년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더욱 작품세계에 정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랜 시간 면담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청



천주교 대전교구청



구름가 건축 사옥